

개발과 이슈

IATI와 원조정보 활용에 관한 최신 논의 동향

I. 서론

II. 원조투명성과 IATI

1. 투명성 확대 배경과 IATI의 특징
2. OECD DAC CRS 통계와 IATI 정보 공개 비교
3. 한국의 IATI정보공개 현황

III. IATI 최신 논의 동향

1. IATI 인식 제고와 데이터 활용 촉진
2. DAC 전략적 우선순위 및 IATI와의 시너지 모색
3. IATI 데이터 활용 수단 d-portal
4. IATI 데이터 활용 사례

IV. 결론 및 제언

1. 사업 관리에 데이터 활용 촉진
2. 자체 데이터 관리 강화 및 보고 데이터의 품질 개선
3. 투명성에 대한 인식 개선

[부록] IATI 정보공개항목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개발협력 추진방향으로 '효과적 ODA, 투명한 ODA, 함께 하는 ODA'의 3가지 큰 원칙을 내 놓았다. 그 중 '투명한 ODA'를 위하여 정부는 개발협력의 철학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과거 ODA 사업을 교훈 삼아, 개발사업 전 과정의 외부 공개와 외부 인사 참여 확대와 같은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의 국제 기준에 따른 원조정보 공개 확대 추진을 통해 모두가 쉽게 더 많은 원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협력분야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외적으로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원조투명성과 IATI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조정보공개 현황 및 투명성 확대 노력과 IATI 연례총회 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원조데이터 활용 전략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담았다. 이와 함께 IATI 데이터 활용을 돕는 오픈소스 플랫폼인 d-portal과 해외 활용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전반적인 투명성 개선부터 데이터 활용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ODA 연구·정보센터 김아리

I. 서론

2017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는 OECD DAC 잠정통계 기준¹⁾ 22억불로 29개의 DAC 회원국 중 15위²⁾를 기록하였다. 지원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총 지원규모는 다자간 원조의 감소로 인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양자간 원조는 약 16억불로 전년대비 약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원조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에서는 원조의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ODA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공적원조인 만큼 궁극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를 국제사회와 약속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설득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이 모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개발협력분야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다양하게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투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함께 대두되었다. 투명성 강화는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보다 폭 넓은 개발효과성을 촉진하며, 일관된 개발 협력사업의 실행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공여국과 기관이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해낸다면, 더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 생산부터 원활한 활용을 위한 체계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국제적으로 확대된 정보공개 요구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투명성 증진에 대하여 원조투명성과 IATI, 그리고 현재 IATI 내에서 논의 되고 있는 원조데이터 활용 전략을 비롯한 최신 동향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원조투명성과 IATI

1. 투명성 확대 배경과 IATI의 특징

원조투명성은 정부의 책임에 대하여 대중의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원조흐름 정보(aid flow information)의 포괄적인 활용 및 접근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오는 원조흐름 정보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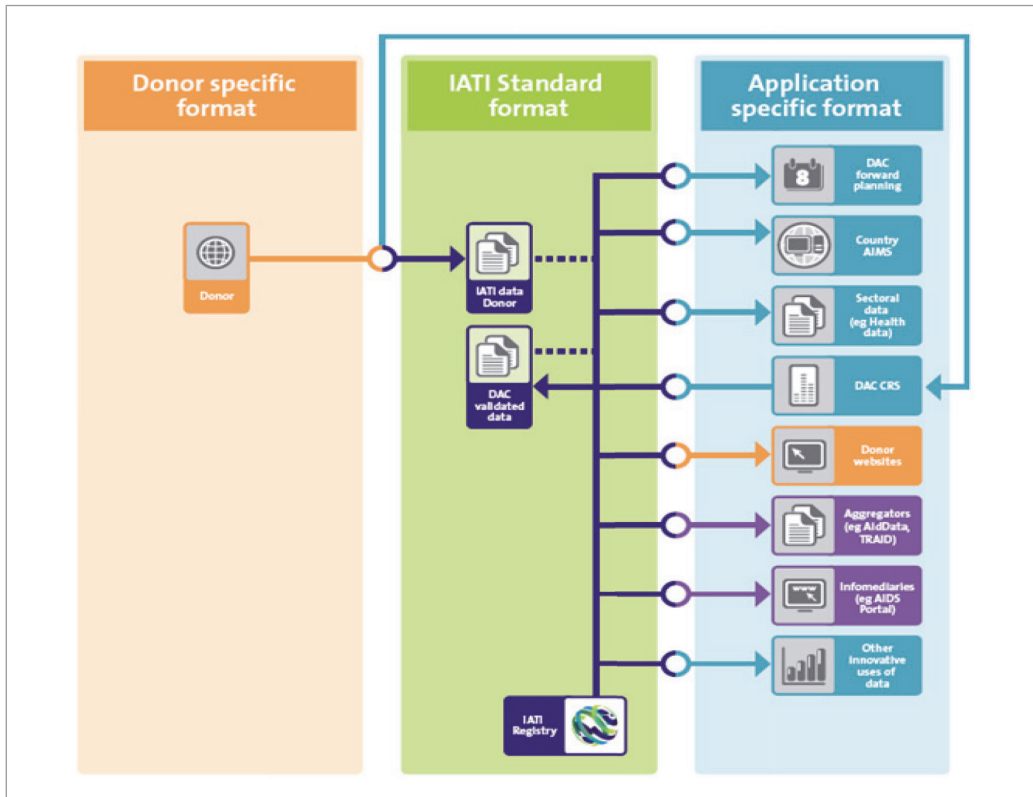
1) 통상적으로 잠정통계는 4월, 확정통계는 각 공여국의 제출자료에 대한 피드백 반영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공식 발표된다.

2) 출처: <https://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TABLE1&lang=en>

의 적절하고 체계적이며, 비교 가능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Moon & Williamson, 2010). 최근 우리나라의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외부적으로 실제 진행 중인 사업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도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원조투명성의 강화는 이전보다 원조 사업정보에 대하여 각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세부적이고 비교 가능한 원조데이터로 필요한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품질의 정확한 데이터는 개발 원조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조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중점을 두어야 할지 정보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데이터는 더 나은 사업의 조정과 분석,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국제사회는 원조 효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국제 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는 2008년 가나 아크라 OECD/DAC 제3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서의 투명성 관련 논의로 본격 대두되었고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 출범하였다. IATI는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원조활동과 그 재원규모를 IATI라는 공통된 기준 하에 한곳에서 보고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다. 공통된 기준 없이는 공여국은 중복 보고에 대한 부담을, 정보 사용자들은 다른 포맷을 가진 수많은 데이터 원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취합해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결국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시간 소모적인 과정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통의 정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고, 이것이 IATI를 만드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특히, IATI는 공개하는 정보에 대하여 xml 형태의 데이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포맷은 여타 데이터보다 빠르고, 기계로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형태이다. 또한 엑셀 스프레드시트나 차트, 그래프 등 다양하게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프로그램으로도 사용 및 변환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자료간 쉽게 결합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이와 더불어 불특정 다수가 제한 없이 보다 쉽게 사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IATI는 단순 데이터 공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활용의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그림 1] 공통의 기준 정보공개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활용



(출처: <http://www.d-portal.org>) (접속일: 2018. 10.23.)

원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정부 역시 자신들의 국가 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IATI는 적시에 현재 진행 상태와 미래에 있을 집행 계획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원국에서는 이를 각 국가 내 재정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OECD DAC CRS 통계와 IATI 정보공개 비교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특정 공여국의 원조통계나 특정 분야의 국가 원조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OECD DAC CRS 통계³⁾를 참고하고 있다. 실제로 CRS 데이터는 개발 분야에서 정부, 기관, 연구자들에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지역별, 분야별 원조배분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데이터 자료이다. 앞서 하나의 공통된 기준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표방하는 IATI의 정보공개 데이터가 이 CRS 데이터와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IATI는 CRS와는 달리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공여국과 기관들이 필요한 때에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원조에 대한 세부정보를 분류, 공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이다. IATI 기준은 기존의 CRS 정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두 데이터 방식은 경쟁적인 구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구도이다. CRS 데이터는 DAC 공여국의 원조지원규모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공되는 일종의 권위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반면 IATI 데이터는 공여국들을 위해 중복 노력을 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공개하되 간소화된 방법으로 제공되는 자료이다(IATI, 2011). CRS 데이터가 비교가능하고 포괄적인 연간 통계를 생산하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반면 IATI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CRS 보다 덜 포괄적인 사업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집행 예정 정보를 비롯하여 더 세부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CRS는 1년 내 발생한 공여국의 원조지출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고, 때로는 동일 국가, 동일 분야의 몇 개의 사업이 결합되어 보고되기도 하지만, IATI는 개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인 정보를 비롯하여 관련 사업 문서 정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CRS는 공개되는 데이터의 범주가 모든 ODA 흐름을 포함하는 반면에 IATI는 적시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실제 자금 흐름의 일부만 포함될 수도 있으나 비 DAC 공여국의 원조 등 그 공개대상이 CRS보다 더 열려 있다.

DAC 통계 시스템도 계속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나 데이터 생성 의도부터 공여국에 의해 지출된 원조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기록 생성차원에서 고안된 것으로 개도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업정보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교 가능하면서 완전하게 품질이 검증된 데이터가 CRS 라면, IATI는 다양한 기관들에 의하여 세부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적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기준이다.

3)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통계는 사업 건별 실적 금액 및 내용이 포함된 건별 통계이고, DAC 통계는 분야별, 지역별 총액 실적의 집계통계임. 이 두 통계 양식을 하나로 통합한 보고양식이 CRS++임.

[표 1] CRS++ 통계와 IATI 데이터 비교

	CRS	IATI
구조	중앙 데이터 베이스	공여국, 기관이 온라인 상 공개
데이터 범위	DAC 회원국의 모든 ODA 실적 (다자기구와 일부 비DAC 회원국 포함)	공여국, 기관의 국별 프로그램 원조를 포함한 현재진행 사업정보 및 미래 집행계획 포함
보고주기	전년도 실적 보고	공여국이 원하는 시기에 공개 업데이트 (적어도 분기별 이상 공개 권고)
목적	원조흐름 모니터링을 위한 공여국의 정보 필요 충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필요한 정보 충족
포함 정보	공여국의 원조 지출에 중점을 둔 개별 프로젝트의 지출데이터 및 사업 내용	개도국 측면에서 유입되는 특정 원조흐름 파악에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CRS 정보를 비롯, 문서나 수행기관 이름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도 포함)
정보 제공자	공여국 제공	추가적인 정보는 수원국 정부와 같이 다른 이해관계자에 의해 공개 가능

(출처: IATI (2011)을 재구성)

3. 한국의 IATI 정보공개 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인 투명성 증진 흐름에 맞추어 한국은 2014년 3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IATI 가입 의결 후 2015년 12월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이듬 해 2016년 8월,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원조사업 정보에 대한 필수공개 13개 항목을 시작으로 본격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조정보공개 노력을 확대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연 1회 최초 보고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연 2회 현재진행사업에 대하여 그 공개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며 보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무조정실 주관의 원조정보 공개 및 IATI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개항목과 주기, 대상 등 보다 확대된 공개를 논의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었다. 여기서 논의해온 IATI 정보공개항목은 기관 정보 9개와 사업정보 33개를 포함하여 총 42개의 공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국은 2018년도 1차 IATI 정보공개를 기준으로 기관정보 4개, 사업정보 18개로 총 22개의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18년도에는 국내 모든 ODA 시행기관으로 그 공개대상이 확대되면서

ODA에 참여하는 국내 49개 부처 및 기관의 진행 사업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 증진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나가고 있다.

[표 2] 연도별 IATI 정보공개항목 및 보고주기 확대 추이

보고연도	'16년	'17년		'18년	
보고항목	13개	18개	22개	22개	29개 예정
보고주기	연 1회 (8월)	연 2회 (4월, 12월 보고완료)		연 2회 (3월, 12월 보고예정)	

(출처: 저자 작성)

III. IATI 최신 논의 동향

1. IATI 인식 제고와 데이터 활용 촉진

IATI는 2015년에 실시된 그간 활동에 대한 첫 번째 평가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IATI가 원조투명성을 국제적인 아젠다로서 성공적으로 이슈화 시켰다는 점과 회원국들이 아크라 목표와 부산 공약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적절히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 특히 IATI의 거버넌스 측면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공여국의 공개 데이터의 품질 문제와 그 관련성, 수원국의 데이터 사용 문제 측면은 향후 더 논의 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IATI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니셔티브라는 점과 더불어 원조투명성 관련 인식과 신뢰성을 매우 높은 국제적인 논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정체성에 대한 약점이 있다. 이러한 약점을 야기한 원인으로서는 IATI 회원국 및 관계자 내에서도 합의된 브랜드가 부재하고, 명확한 체제 내 비전과 방향의 부재,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정 자원의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IATI, 2015). 2008년 설립 이래 진행한 첫 번째 평가에서 드러난 약점과 함께 IATI 내부에서도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과 방향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회원국 총회 내에 이를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었다.

국내의 원조데이터 공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인 2015년 12월, IATI 운영위원회에 서는 조직 내에 위계질서 구조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을 시작으로, 다수 회원국의 동의와 함께 2016-2018년을 체제 전환기간으로 두고 IATI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IATI가 향후 나아갈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단순히 원조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세계적인 데이터 표준을 세우는 역할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원조정보에 대한 투명성 증진과 수원국의 해당 정보 활용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정치적 이니셔티브로서의 역할도 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 강조되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전환기간 동안 논의되어야 할 전략적 우선순위로 1) IATI 데이터 활용의 증진, 2) IATI 데이터 품질 제고, 3) IATI 정보공개 기준의 개선, 4)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및 아웃리치(outreach), 5) 체제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2008년 IATI 출범 당시의 우선순위는 공여국과 공여기관, 시민사회단체(CSO)등의 정보공개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원조정보 공개 참여자 수의 빠른 증가로 인하여 현재 영국, 미국, 스웨덴 등 주요 공여국을 비롯한 800개 이상의 기관이 정보공개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 참여 기관수의 양적 확대보다는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과 활용이 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IATI 사무국은 올해 18년도 연례총회에서 주요 6가지 목표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IATI가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사무국이 제시한 6개 목표는 △IATI 데이터 사용의 이익에 대한 인식 제고,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속한 조직 내 데이터 품질 향상에 투자하도록 설득; △IATI 정보공개 참여기관의 전략적 확대; △보다 많은 IATI 회원 확보; △필요시 자금 확보 방안 마련; △관련 글로벌 혹은 지역적 정치 프로세스와 아젠다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IATI의 비전 및 미션 촉진으로 구성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수원국 정부 부처 및 기관, 수원국 NGO 및 CSO를 대상으로 IATI 데이터 사용의 이익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였다. 그 외 IATI 데이터 품질 향상, IATI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기관 수의 전략적 확대 및 각종 글로벌 및 지역적 정치프로세스와 아젠다에 적극 관여하여 IATI의 비전과 미션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원조정보의 원천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이미 상당한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IATI 정보공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공여국과 남남협력의 제공자들의 참여 독려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은 여러 회원국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IATI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데이터 활용 촉진은 총회 내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것 중 하나로 이를 위한 전략 목표 수립과 함께 별도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팀이 활동 중에 있다.

지난 2017-18 IATI 연례총회에서는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5가지 목표가 제시되었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1) IATI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강화와 데이터 사용자 간의 추진력 창출
- 2) 데이터 품질 개선
- 3) 기존의 데이터 사용 수단 개선 및 사용자 친화적 수단 개발
- 4) 사용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지원 향상
- 5) 수원국 원조관리시스템 및 재정관리시스템과 IATI 데이터와의 통합 촉진

우리나라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도 원조사업을 진행하는 이해관계자이지만 아직까지 IATI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 공통된 기준의 정보공개를 통해 다양한 원조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함을 내세우는 IATI이지만 일종의 원조정보의 원천으로서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내부적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회원국들의 논의 중에서는 데이터 활용 관련 기술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인식 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각 사용자에게 맞는 맞춤형 훈련과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사용자(user)의 데이터 활용 촉진에 앞서 제공자(publisher)의 데이터 품질 개선이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제공자 대상에게도 교육 진행 및 가치 있는 환류체계(feedback mechanism)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언급되었다.

이와 더불어 IATI 데이터 사용에 도움이 되는 사용자 친화적 수단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최종 사용자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고 유의미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가이드라인과 같이 도움이 되는 사용자 친화적 수단을 제공한다면 데이터 품질 강화를 최소화하고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들도 다수 언급되었다.

제안된 목표 중 특히 수원국 측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은 가이드라인과 교육지원 관련이었는데 수원국 실정에 맞는 데이터 가공과 데이터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무엇보다도 본 목표의 논의에서는 수원국 그룹 측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동료 학습(Peer Learning)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하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국이 각 국가 내 이루어지는 원조사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해당 데이터를 자체 원조관리시스템이나 재정관리시스템에 연결하여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IATI의 데이터가 수원국의 자체 데이터 관리 시스템

과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많이 제기되었다.

2. DAC 전략적 우선순위 및 IATI와의 시너지 모색

17년도 IATI 연례총회에서는 특히 DAC와의 협력방안 모색이 강조되었다. Charlotte Petri Gornitzka OECD DAC 의장이 IATI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DAC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소개하면서 IATI와의 향후 시너지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DAC 의장은 DAC와 IATI는 경쟁관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어떻게 협업하고 상호보완적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여러 논의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현재의 개발협력은 과거 공여국 중심에서 벗어나 더 많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그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OECD에서는 지속적으로 균형 잡힌 논의를 통해 더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OECD DAC가 가진 아래와 같은 6가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전달하였다.

- 1) 개발의 영향력 확대 및 자원 조성에 집중
- 2) 기존에 존재하는 개발 접근법으로부터의 학습
- 3) 새로운 개발 접근법 연구 및 동기 부여
- 4) DAC 회원국 외 개발주체들에 대하여 아웃리치 실시
- 5) 주도적인 자기 평가 및 신뢰성 확보
- 6) 국제사회 내 다양한 구조 안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및 구조 구축

특히 DAC 의장은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의 질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보완적 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원국들도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DAC와 IATI가 상호 강화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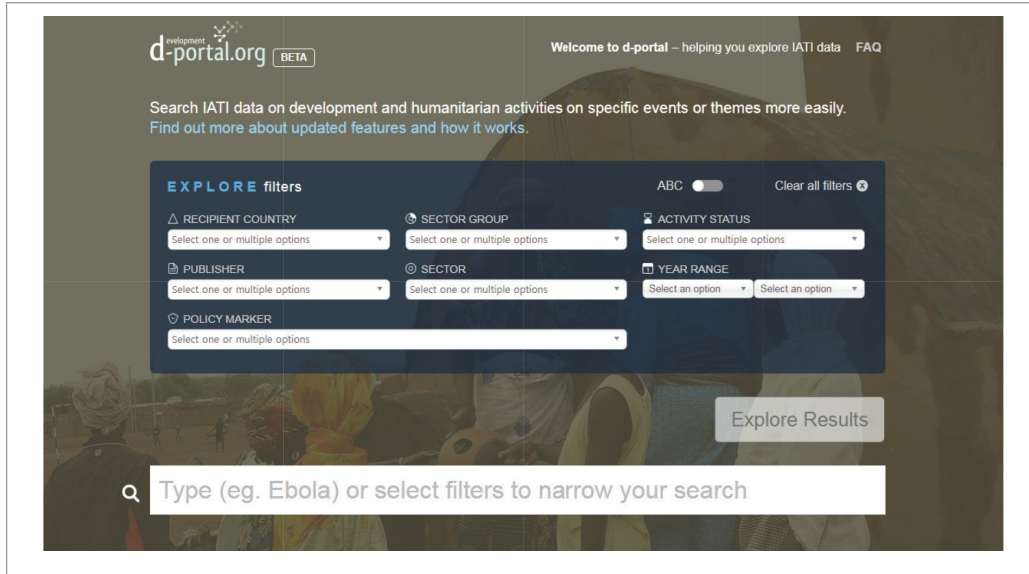
논의 중 제기되었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DAC 회원국들 중에서 아직 IATI에 정보공개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정보공개 독려 방안과 공개데이터의 품질 문제 등이었다. 이에 DAC 의장은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략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비 IATI 정보공개 회원국을 위한 설득도 필요하지만 설득 그 이전에 DAC와 IATI가 가진 각각의 프로세스가 서로에게 어떠한 시너지를 일으키는 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IATI 데이터 활용 수단 d-portal

IATI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원조의 책무성, 조정,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도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이들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미래에 진행될 원조사업계획을 비롯하여 어디서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그 원조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최신의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IATI는 공개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확인할 수는 있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d-portal이다. d-portal이란 공여국 및 기관이 IATI에 공개한 개발 사업과 예산에 관한 정보와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IATI 데이터와 OECD DAC CRS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 자체의 복잡한 성격을 제거하여 사용자가 IATI와 데이터 운용에 대한 제한적인 배경지식과 이해를 가지고도 쉽게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2] d-portal 메인 화면



(출처: <http://www.d-portal.org>) (접속일: 2018.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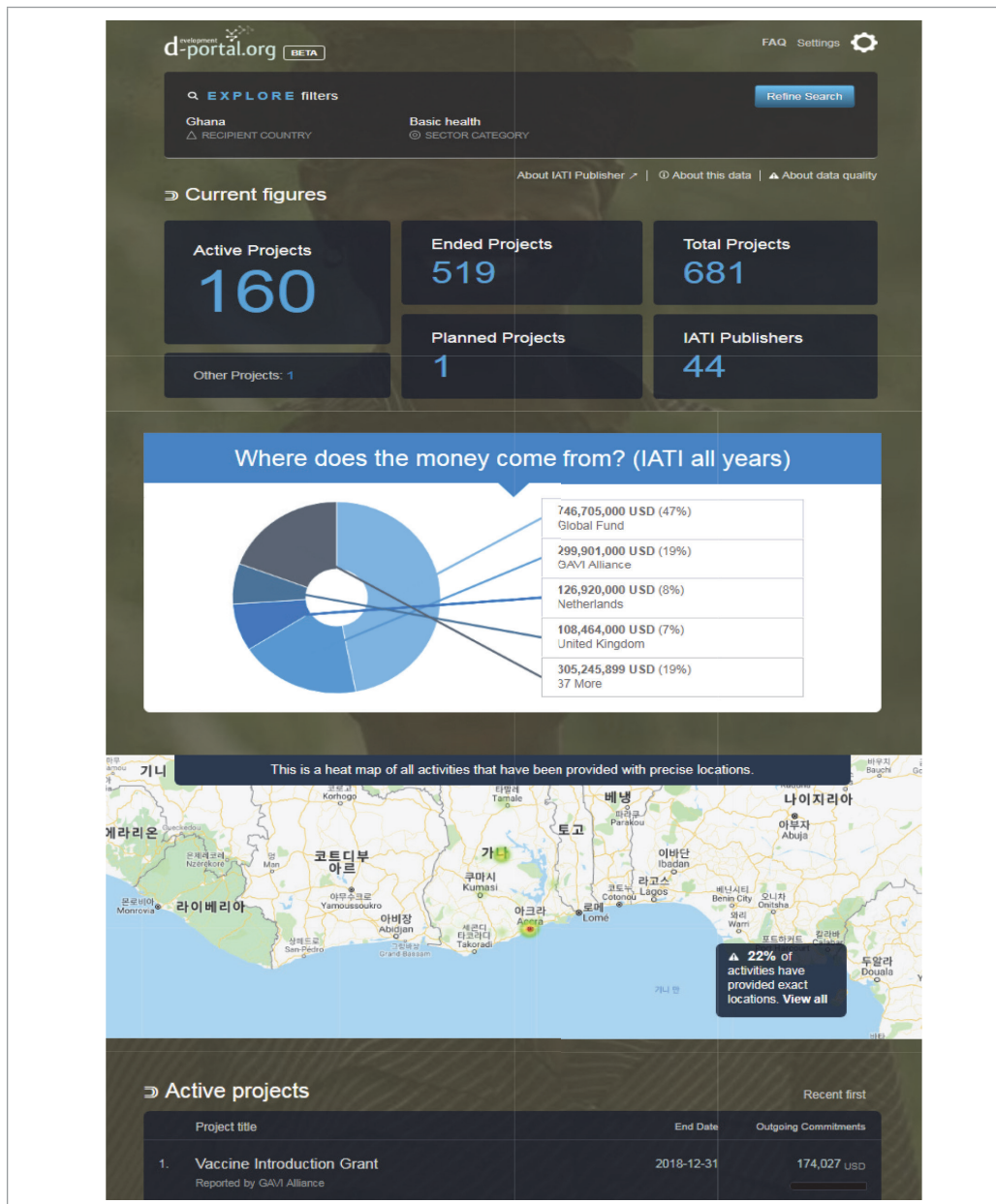
특히 d-portal에서는 간소화된 검색 기능 제공을 통해 특정 수원국의 특정 분야에 대한 사업을 검색하여 볼 수 있는데 [그림 2]와 같이 필터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검색하거나, 특정 주제나 이슈 사업에 대하여 직접 그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터는 수원국(Recipient Country), 정보공개자(Publisher), 분야코드(Sector Group, Sector), 사업의 진행상태(Activity Status) 및 연도(Year Range), 정책마커(Policy Marker)로 구성되어 있다. 옵션은 하나 혹은 다수로 선택 가능하고 특정 기간의 현재 진행, 종료, 미래 계획된 프로젝트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다. 검색 결과는 리스트, 그래프, 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림 3]과 같이 간단하게 필터에서 수원국 가나와 기초보건 분야만을 선택하여 검색하였을 때, 선택한 옵션에 관한 정보공개자 및 전체 프로젝트 개수를 현재 진행과 종료된 사업, 계획 중 사업으로 나누어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기초보건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원의 비중을 그래프로 한 눈에 볼 수 있고, 정보공개자가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세부 사업지역 정보까지 공개하였을 경우, 가나 지도상에 그 위치를 표기하여 보여준다. 검색결과로 드러난 사업리스트를 개별적으로 클릭하여 보면, 시작 종료일 정보부터 부여된 각 정책마커⁴⁾ 정보까지 해당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d-portal은 현재 베타 버전으로 실 사용자로부터 들어오는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다. 다소 제한된 검색 조건으로 인하여 복잡한 분석과 자료 필터링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중에 있어 차후 더 발전될 여지를 가진 가치 있는 오픈 소스 툴이다.

4) DAC 통계 보고 시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원조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과의 연관성을 표시하는 항목으로 성평등, 환경, 참여적 개발/굿 거버넌스, 무역개발,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완화,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적응, 모자보건증진(RMNCH)으로 총 9개 마커가 있음.

[그림 3] d-portal 검색 예시



(출처: <http://www.d-portal.org>) (접속일: 2018.10.29.)

4. IATI 데이터 활용 사례

18년도 연례총회에서는 일부 회원국들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진행하였던 공개행사 사례와 그 결과에 대하여 발표 세션이 마련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모두 IATI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d-portal을 활용한 사례도 많았다. 그 중 본고에서는 프리랜서 언론인 협회(Association of Freelance Journalists)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의 ‘World Press Freedom Day 2018’,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AfDB)의 ‘Projects Data Portal (MapAfrica)’, 옥스팜(Oxfam America)의 ‘우간다 원조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등 3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World Press Freedom Day 2018

2018년 IATI 연례 총회에서는 IATI 데이터 활용 전략에 따라 여러 형태의 활용 사례가 소개되었다. 가장 먼저 지난 5월, 가나 정부와 협업으로 프리랜서 언론인 협회와 UNDP에서 주최한 ‘World Press Freedom Day 2018’ 행사에서 d-portal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실제로 시연하고 홍보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젊은 언론인 40명을 대상으로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실 기반의 저널리즘을 교육하고 그 방법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고, IATI 데이터 생성과 활용, 데이터 저널리즘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요 교육과정을 이끈 프리랜서 언론인 협회의 관계자는 d-portal이 개발재원흐름의 방향과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데이터 소스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2) Projects Data Portal (MapAfrica)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AfDB)은 본 세션을 통해 IATI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공식 홈페이지 내 자체 데이터 포털을 소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AfDB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이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하고 4,200개 이상의 프로젝트 데이터 및 관련 문서 열람도 가능하다. 포털 내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추었고, 엑셀 포맷으로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세션 내에서 검색을 시연하였다. 특히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비롯하여 분야, 재원 등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AfDB 관계자는 IATI 데이터가 이미 잘 구성되어 있는 자료로 사용하기 쉽고 비교 가능한 종합적인 데이터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보제공자들의 주기적 공개에 따라 시스템에 빠르게 잘 반영되고 데이터

품질이 관리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활용이 보다 촉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3) 우간다 원조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옥스팜은 우간다에서 진행한 원조 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지난 5월, 우간다 CSO와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접근이 쉽고 유용한 d-portal의 정보를 기초로 해당 정보를 어떻게 찾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역량강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교육 과정 중 각 프로젝트의 보다 상세한 자료를 원하는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으나 교육 과정 중 발견된 일부 데이터의 불일치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데이터 품질 개선을 재차 강조하였다. 옥스팜 관계자는 사례 소개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현재 데이터 활용 촉진 관련 태스크 포스팀이 활동 중이나 이와 별개로 모든 회원국이 본인이 속한 기관에서도 원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독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1. 사업 관리에 데이터 활용 촉진

개발협력사업을 기획, 관리하는 과정에서 타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보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 없다.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활용 수단 개발이 이어지고 있고, 그 활용도 지속적으로 독려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가 직접 개별 의도에 맞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가공이 용이하게 된다면 매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IATI 내 오픈소스 툴인 d-portal의 경우 실질적으로 베타 서비스 오픈을 통해 다양한 의견 및 보완점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바,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데이터 활용에 대한 최신 동향 습득 및 개발된 새로운 데이터 툴을 직접 사용하여 보면서 주기적으로 역량강화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많은 데이터 중 각자에게 필요하고 유효한 데이터를 선별해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정보를 우선 획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효과적인 사업 기획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2. 자체 데이터 관리 강화 및 보고 데이터의 품질 개선

국제적인 투명성 증진 흐름에 맞추어 기관에서는 자체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연계 강화가 필

요하다. 특히 KOICA의 경우에는, IATI에 보고되는 데이터가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 평가에도 1차적으로 연결되는 바, 데이터의 정합성은 매우 중요하다. ATI 평가는 단순히 IATI 정보공개 항목과 연계되는 평가항목 외에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관 내 자료들을 통해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이러한 평가 대응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는 정확하고 질 좋은 데이터를 보유하여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이 원하는 때에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보다 많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개선이 중요하고, 이는 원조 데이터 자체의 사용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조정보 공개를 위하여 사업 유형별로 다양하게 보유한 정보를 내외부적으로 잘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해외 우수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이 함께 평가받고 있는 ATI 평가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기초 데이터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3. 투명성에 대한 인식 개선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보다 그 범위가 줄어들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요구도 더 빈번하여 질 것이다. 물론 IATI 정보공개를 위한 기술적인 도전과제들도 여전히 크지만, 조직 내 상위 의사결정자 수준에서의 정책적인 투명성 강화 의지와 조직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Ingram, 2018).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도 투명한 사업 공개를 통한 선순환의 효과를 도모하고, 해외 선진원조기관들의 정보공개 형태와 그 수준을 참고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원조정보 공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옥스팜의 의견과 같이 수원국의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동일하게 IATI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여국과 모든 기관에서의 인식도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투명성 그 자체로는 현재의 개발협력분야 내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더 나은 의사결정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국제협력단. 2017. 『17년 IATI 연례총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내부자료.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18. 『18년 IATI 연례총회 결과보고』 내부자료.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Moon, S. and T. Williamson. 2010. “Greater aid transparency: crucial for aid effectiveness.” ODI Briefing Paper No. 35, London,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and Publish What You Fund, available at <https://www.odi.org/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5722.pdf> (접속일: 2018.10.10.)

George Ingram. 2018. “How better aid transparency will help tackle global development challenges” posted on Brookings Institute website on 21 June, 2018, available at <https://www.brookings.edu/blog/up-front/2018/06/21/how-better-aid-transparency-will-help-tackle-global-development-challenges/> (접속일: 2018.10.29.)

IATI. 2011. “Complementary roles for the OECD–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New York/London :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available at <http://www.aidtransparency.net/news/new-papers-on-iatl-and-the-crs-and-aaa> (접속일: 2018.10.23.)

IATI. 2015. “IATI Evaluation 2015 Report 1 IATI as a Political Initiative,” New York/London :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available at https://iatistandard.org/documents/421/IATI_Evaluation_2015-Report-1-IATI-as-a-Political-Initiative.pdf (접속일: 2018.10.23.)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IATI) 홈페이지: <https://iatistandard.org> (접속일: 2018.10.23.)

Publish What You Fund(PWYF) 홈페이지: <http://www.publishwhatyoufund.org> (접속일: 2018.10.23.)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접속일: 2018.10.12.)

D-portal 홈페이지: <http://www.d-portal.org> (접속일: 2018.10.29.)

Annex 1. IATI 정보공개항목 (2.03 기준)

구 분	상위 항목 (영문)	상위항목 (국문)
기관정보 (9개)	1. Organization Identifier	기관 식별자
	2. Organization Name	기관명
	3. Reporting Organization	보고 기관
	4. Total Budget	전체 예산(3년간)
	5. Recipient Organization Budget	수원기관 예산(3년간)
	6. Recipient Region Budget	수원지역 예산(3년간)
	7. Recipient Country Budget	수원국 예산(3년간)
	8. Total Expenditure	전체 지출(3년간)
	9. Document Link	문서링크
사업정보 (33개)	1. IATI Identifier	IATI 식별자
	2. Reporting Organization	보고 기관
	3. Title	사업명
	4. Description	사업 설명
	5. Participating Organization	참여 기관
	6. Other Identifier	기타 식별자
	7. Activity Status	사업 진행 상황
	8. Activity Date	사업 날짜
	9. Contact Information	연락 정보
	10. Activity Scope	사업 범위
	11. Recipient Country	수원국
	12. Recipient Region	수원지역
	13. Location	위치정보
	14. Sector	분야
	15. Country Budget Items	수원국 예산항목
	16. Policy Marker	정책마커
	17. Humanitarian	인도적 지원
	18. Collaboration Type	협력형태
	19. Default Flow Type	재원흐름
	20. Default Finance Type	재원종류
	21. Default Aid Type	원조형태
	22. Default Tied Status	구속성상태

구 분	상위 항목 (영문)	상위항목 (국문)
	23. Budget	예산
	24. Planned Disbursement	집행 계획
	25. Capital Spend	자본 지출
	26. Transaction	거래
	27. Document Link	문서링크
	28. Related Activity	관련 사업
	29. Legacy Data	운영계 데이터
	30. Conditions	조건
	31. Result	결과
	32. CRS-ADD	CRS-ADD
	33. FSS	FSS
	총 42개 항목	

(출처: <https://www.aidtransparency.net> 내용 재구성) (접속일: 2018.10.23.)

연구자료

연구정보 2018-19-254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